



“서울여성 평균옷53점 의복구입비 월7만원”

티셔츠 9 스커트 7 바지 6 점등 순서
의출복 살때 스타일 우선 고려 57%

서울에 사는 여성들은 평균 53점의 옷을 가지고 있으며 의복구입비로 한달에 7만원을 쓴다. 외출용 옷을 구입할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스타일이며, 실용성과 색채는 스타일이 만족된 후의 기준이 되고 있다.

10명중 4명정도가 수입의 7%를 구입한 적이 있으며, 나머지는 국산과 비슷해진다면서 수입의류를 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패션협회

회가 이화여대 曹圭和교수에 게 의뢰한 「현대여성의 패션 의식과 소비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발표수는 서울시내에 사는 18세(19살자)부터 47세(해방직후 출생자)까지의 여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옷보유량 53점은 최근 일본 여성의 옷보유량 80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옷을 종류별로 보면 △티셔츠 9.2점 △스커트 7.1

점 △바지 6.8점 △스웨터 5.8점 △블라우스 5.5점 △재킷 5.2점 △투피스 4.9점 △원피스 3.4점 △코트 2.7점 △잠바 2.6점의 순서인데 코디네이션 옷끼리를 위한 단품의 옷을 많이 가지고 있다.

“수입옷구입” 44%의 한국인들은 월평균 7만원을 쓰는데 10만원정도를 쓰는 사람이 가장 많고 31

(%) 5만원정도가 27%, 3만원정도가 25%, 20만원이상이 9%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비지출이 높고 감각적인 패션에 추구하는 여성들의 의류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복구입시 스타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실용성 17%(을 따지는 비율을 크게 늘렸다. 다음으로 색채 7%(착용감 7%) 가격(6.2%(소재 4%) 브랜드 2%)

바느질 1%(을 들었는데 스타일 색채 등의 패션성이 실용성 착용감 가격 등에 비해 선택 기준으로 더 많이 고려되고 있다. 브랜드만 보고 선택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자중 수입의류를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4%였다. 이들은 구매동기로 스타일 소재가 좋 37% △디자인 33%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 18% △착용감 8% 등으로 유명 브랜드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해 시장 장래 이후 수입의류의 국내 시장 잠식이 예상된다.

개성있는 옷 선호

색채는 점선색과 흰색이 많으나, 회색 빨간색이 등장하고 있다. 파스텔조의 밝은 색을 다양한 색상이 다량의류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의복구입은 전반적으로 젊은 감성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따라 대형의류업체 체보다는 젊은 취향에 민감한 중소브랜드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또 상류 여성들은 대형업체 제품보다는 개성이 강한 디자인의 브랜드 기성복을 선호하거나 앞으로 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또 가리고 싶은 신체부위를 배키영역 이 다리 허리의 순서로 들었다. (姜尙憲)

여성들을
들고
화려차림
이다.